

DACOM - Mail 400

F A X

95/10/24 14:28

배달서비스

지정수신인 : 인권하루소식 편집부장

수신 : FAX/8227159186(인권하루소식 편집부장)
 발신 : RIODP
 송신 시각 : 95/10/24 14:22
 수신 시각 : 95/10/24 14:28
 메시지 ID : RIODP-9510-051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
10/24	A4	87 장애인

성명서 2% 장애인 공천을 요구한다

- 2% 장애인 공천 관련 장애인 3단체를 적극 지지 한다

지난 6.27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가 추진한 2% 장애인 공천 할당제에 이은 장애인계의 '정치참여' 움직임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등 장애인 3개 단체가 지난 10월 4일 '선언문'을 통해 [국회의원 정족수의 2% 장애인 공천]을 요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4백만 장애인과 1200만명의 장애인 가족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부터 차별과 소외, 그리고 편견으로 힘겨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다가 장애에 대한 책임까지도 모두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짊어지고 살아왔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장애인 관련 법이나 제도조차 없는데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편견 심화와 함께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완전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의 입장을 배제한 장애인 관련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정책이 장애인복지 발전을 향한 진정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장애인계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지난 14대 총선 시 2% 장애인 공천 할당제를 요구를 시발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는 6.27 지자체 선거 등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장애인 참여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에 최근 일고 있는 장애인 3단체의 정치참여를 위한 여러가지 움직임에 우리 공대협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2% 장애인 공천 할당제를 요구한다.

1995. 10.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